

# 정당 간 경선 허용...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 민주당 정치혁신위, 혁신안 마련

## 투표연령 만 18세 하향·투표시간 연장 지역위 정당 조직 사실상 '지구당 부활'

민주당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19일 선거 연합을 위한 정당 간의 경선을 허용하고 대통령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치혁신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하고 비대위 보고 절차를 거쳐 20일과 24일 두 차례로 나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혁신위는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는 선거에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포함시켰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 추천을 허용,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야권연대 등 선거 연합 없이 독자적 승리가 쉽지 않은 민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진보에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에 따르지 않는 해당기관(장)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입법청원권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와 답변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정당가입 등 정당 활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혁신위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는 일정이 촉박, 별도의 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권한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가 내놓는 방안을 보면 어느 하나도 쉽게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특히,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무공천 문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어 상당한 고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각각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문위로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핵심 상임위'로 급부상한 상황이 다.

미방위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를 관장한다는 점에

## 국회 상임위 조정...의원 재배치

### '핵심 상임위' 급부상 교문위에

### 광주 이용섭·박혜자·장병완 3명 포진 가능성

정부가 조지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가 조정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핵심 상임위로 급부상한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게는 3명이나 포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현재의 1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되, 7개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 등을 변경하는 개편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각각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문위로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핵심 상임위'로 급부상한 상황이 다.

미방위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를 관장한다는 점에

서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 골치 아픈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부담이다.

여야는 미방위의 정수를 30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교문위의 정수를 2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1명씩 2명을 교문위로 재배치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교문위의 인기도를 감안할 때 녹록지 않은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원내 지도부에 교문위 진출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는 기존의 교과위원이었던 이용섭, 박혜자 의원이 교문위에 배치될 예정이며 문방위의 장병완 의원도 교문위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명의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교문위에 배치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당권 도전 이용섭 의원 "당 대표 되면 예비내각 구성"

민주당합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19일 "당 대표가 되면 한국형 예비내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내각은 각종 국정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정책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정치의 중심은 권력에서 민생으로, 국회는 정쟁에서 정책의 경연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부 장관보다 야당 장관이 훨씬 낫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압도하는 민생정책을 내놓기 위해 공부하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내각은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적으로 국민의 공간 속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민주당이 '준비된 정당'이라는 안정감을 줘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내각제는 정부의 내각에 대응해 야당도 해당 분야의 장관을 임명해 자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영국(그린내각), 프랑스 사회당(대항정부), 아일랜드 노동당(예비내각), 일본 민주당(내일의 내각)도 예비내각을 갖고 있다.



김동철(오른쪽 세번째) 민주당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4·24 재보선 공천과 관련한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오늘 회동

# 당권 주자·시당위원장 '교통정리' 주목

광주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조찬 회동을 갖고 5·4 전당대회 지 도부 경선 주자 조율과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날 회동에서는 당권 도전에 나서는 강기정(북 갑), 이용섭(광산 을) 의원의 단일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당권 주자로 나설 경우, 경선에서의 지역 표심 결집이 어려운 상황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최고위원은 지역 현안을 챙기는 역할이 있어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당 대표 주자가 지역색을 띠면 오히려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단일화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 대표 경선 구도를 감안하면 컷-오프(예비 경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주자를 지역 정치권이 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 문제도 이날 회동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의 장병완(남구) 의원의 연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박혜자(서구 갑), 임내현(북구 을)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의 광주시당위원장 연임과 관련, 그동안 시당 운영을 원만하게 한데다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광주시당 위원장의 연임 사례가 없는데 그가 차기 광주시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초선인 박혜자 의원의 경우, 합리적 조정력이 있는데다 여성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에 추대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으며, 임내현 의원은 검사장을 지낸 경륜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조정력이 약한 초선 국회의원들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광주시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력이 끌어 내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결국, 추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ℰ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정사거리면)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대가 7억 원) 19%전환, 용지 19%전환

◆상가매매◆  
•신용동 철근2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대가 8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용지4억 원 이동통신점 임업예정  
•신용동 철근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 원

**분양**  
•용두동 철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 상권) m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 원  
•용두동 철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 상권) 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신용동철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신용동철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관도 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 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룸37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 원 7933천만  
•월전동 홈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원 66억 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상담)

**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투자, 권리분석, 비법전수 등등  
(주)오현정 H.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익"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